

이상적인 관리 명부 뽑은 《낙포도정》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의 고서들 — 5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이름을 알 수 없는 작가가 쓴 《낙포도정》은 조정에서 관원을 임명한 명부인데, 중앙 관청의 명부인 내안과 지방 관청의 명부인 외안으로 나뉘어 있다. 이 책의 작가는 천여명의 중국 인물들을 조선 곳곳의 관청과 요새에 배치하면서, 마치 임금이라도 된 것처럼 행복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인물평가 기준을 더듬어보는 것이 재미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당연히 벼슬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윗놀이나 주사위놀이를 하면서도 벼슬이 하나씩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놀았다. 성현(成俔, 1439~1504)이 지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성불도(成佛圖)·종정도(從政圖)·작성도(作聖圖) 놀이가 소개됐는데, 불가에서 즐겨 놀았던 '성불도'는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가 씌어진 주사위를 던져서 지옥부터 대각(大覺)까지 수십 군데의 제천(諸天) 체계(諸界)를 오르내리며 승부를 다뤘다. 먼저 부처가 되면 이겼던 것이다. 제학 권우(權遇, 1363~1419)가 만든 '작성도' 놀이도 역시 주사위를 던져서 성인이 되기를 겨룬 것인데, 유가의 덕목인 성(誠)·경(敬)은 두 글자씩 쓰고 경계할 행위인 사(肆)·위(僞)는 한 글자씩 써서 그 숫자에 따라 성인이 될 때까지 오르내리며 놀았다. 정승 하륜(河崙, 1347~1416)이 만든 '종정도' 놀이도 주사위에다 덕(德)·재(才)·근(勤)·감(堪)·연(軟)·빈(貧) 여섯 글자를 써서 던져 승부를 다뤘던 놀이인데, 덕과 재가 나오면 올라가고 연과 빈이 나오면 그만뒀다. 9품에서 시작해 1품 정승까지, 능력과 운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사대부의 벼슬길과 꼭 같았다. 서거정은 《필원잡기》에서 작성도 놀이가 한갓 주사위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 효용성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놀이가 불가나 사대부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이다.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몽유록'과 조각 놀음

조선중기에 '몽유록(夢遊錄)'이라는 소설 형식이 유행했는데, 대부분 당대 사회에서 소외된 지식인이 꿈속에 이상국가를 설정하고 역대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작품이다. 심의(沈義, 1475~?)가 지은 《대관제몽유록(大觀齋夢遊錄)》에는 최치원이 천자와 이제현이 좌상이며 이규보가 우상인 '문장왕국'이 그려졌다. 김시습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가 큰 공을 세우며 진압했다. 세상에서는 인정

받지 못했던 심의 자신의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2천년 문학사에 올랐던 시인들에게 벼슬을 정해주면서 지적인 유희를 즐겼던 것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몽유록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놀이를 실제로도 즐겼다. 내가 정승이라면 이런 인물을 이런 자리에 추천하겠다고 (혹은 임금이려면 이런 인물을 이런 자리에 임명하겠다고) 포부를 펼치는 놀이인데, 삼국시대 이래의 역대 인물이 총망라됐다. 일제시대 지식인들 사이에 특히 이 놀이가 유행했는데 최남선은, 농부로 천거돼 국정을 맡은 지 13년 만에 태평성대를 이룬 고구려 재상 을파소를 수상으로 내세웠다. 육군대신에는 을지문덕, 해군대신에는 이순신, 감사원장격인 대사헌에는 조광조, 국립대학 총장격인 대사성에는 이황 등의 인물을 기용했다.

마음 맞는 친구들이 한데 모여서 자신들의 안목을 자랑하는 지식유희였던 셈인데, 시대를 초월해 2천년 역사의 인물들을 총망라한 상상력과 식견이 재미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이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남의 식민지가 됐다는 자탄도 겸한 놀이니, 망국 지식인들의 자조 섞인 푸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천민 대표 서기나 중인 대표 홍순언, 서얼 대표 송익필, 아전 대표 엄홍도 등을 제외하면, 20세기에 살았던 그가 내세웠던 5천년 역사의 인재들도 여전히 중세의 사대부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다. 조선 시대에 살면서도 남보다 앞서 혁명을 시도했던 허균·홍경래·전봉준 등의 영웅이나 김삿갓 같은 풍자시인들을 도외시켰으니, 그가 꿈꿨던 이상국가도 결국은 근대화를 도외시켰던 중세국가였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에는 《낙포도정(洛浦都政)》이라는 필사본이 소장돼 있다. 낙포는 '낙수(洛水)의 가'라는 뜻인데,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백성들을 이곳에 옮기고 낙읍이라고 했으며, 주공이

성을 쌓은 뒤부터 낙양이라고 불렸다. 그 뒤부터 낙양은 '서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으며, '장안'과 함께 우리나라 서울을 뜻하는 이름으로도 자주 쓰였다. 도정은 관원을 임명하는 명부다. 즉 《낙포도정》은 조정에서 관원을 임명한 명부인데, 중앙 관청의 명부인 내안(內案)과 지방 관청의 명부인 외안(外案)으로 나뉘어 있다.

중국의 역대 인재들에게 가상으로 벼슬 내려
 '내안'에 소개된 첫번째 관청은 의정부고 관직은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니, 이 책에서 말한 낙포는 분명 우리나라 수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에 천거된 인물들은 모두 중국 역대의 인물들이다. 이 책의 작자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역대 중국의 인물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사를 맡길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관청들은 조선시대 서열에 따라 의정부·춘추관·관상감 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인(舍人)이라는 벼슬 아래 '종사'(從四)라는 품계까지 기록했다. 각 관직에는 작자가 그 관직을 맡길 만하다고 평가한 인물의 이름을 기록했으며, 그 아래에는 그 이유를 밝혔다. 영의정에는 유비를 도와 촉한을 건국하고 삼국시대를 열었던 승상 제갈량을 천거했는데, "일언이폐(一言以蔽), 삼대이상(三代之上)"이라고 했다. "한 마디로 삼대(三代)의 위"라는 뜻이다. 그 아래에 '촉한'이라고 시대까지 밝혀, 역시 한나라 이래 2천년 중국 역사의 인물을 총망라한다는 뜻을 암시했다.

이조판서에는 "심중에 사심이 없어(無心中物) 천하의 걱정을 먼저 했던(先天下憂)" 범중엄을 천거했고, 예조판서에는 "팔대의 문장을 일으켜(起八代文) 백세의 스승이 됐던(爲百世師)" 한 유를 천거했다. 병조판서에는 "천지정기(天地正氣) 춘추대의(春秋大義)"의 관우가 당연히 천거됐으니, 이 정도의 조각이라면 인류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조선에서 펼쳐졌을 것이다.

성균관 대사성에는 주희가 천거됐는데, 그의 이름 아래에는 아무런 설명도 붙어 있지 않다. 주자를 대사성에 천거한 이유를 대는 것조차 불경스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인들이 담당하는 사학(四學)에는 역대 최고의 시인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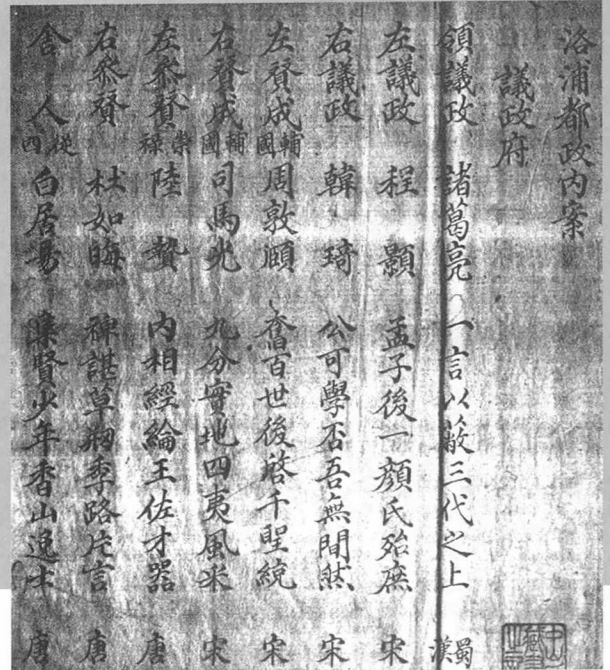
장가들이 천거됐다. 중학(中學) 교수에는 "(고향) 기둥에다 장한 뜻을 썼으며(題柱壯志) 조서(詔書) 초고 짓는데 큰 재주가 있었던(視草宏才)" 한나라 문장가 사마상여를 천거했다. 동학 교수에는 이백이 천거됐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다. 주자를 대사성에 천거한 것처럼, 설명 자체가 군더더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남학 교수에는 "시에 있어서 성인이니(聖於詩者) 궁해지면서 공교로워진(窮乃工也)" 당나라 시인 두보를 천거했다. 서학 교수에는 "남쪽으로 건너가 문장에 뛰어

나고(南渡文章) 북쪽으로 가서 경륜을 펼친(北征經綸)" 남송의 문장가 육유(陸游)를 천거했다. 이들이 중국 5천년 문학사에 가장 뛰어난 시인 문장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벼슬에 천거하지 않았으니, 작자의 냉철한 판단을 엿볼 수 있다.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의도 엿보여

지방 관청의 명부인 '외안'에는 서울을 지키는 길목인 수원부(水原府)가 가장 먼저 실렸는데, 유수에는 "어질고 의로우며(曰仁曰義) 큰 인재요 큰 충신인(大才大忠)" 남송의 문천상을 천거했다. 역대 중국에 이름난 장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신 문천상을 수원유수에 천거한 것은 끝내 원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정기가(正氣歌)>를 지은 뒤에 처형된 그의 절조를 높이 샀기 때문이다. 광주부 중군에 이여송을 천거한 것은 임진왜란 때에 도와준 공을 높이 산 듯하다.

이 책에는 수많은 중국 인물들이 등장한다. '외안'만 하더라도 대도호부사 6명, 목사 21명, 관관 9명, 부사 74명, 부윤 2명, 서윤 1명, 군수 80명, 현령 27명, 현감 122명, 찰방 40명, 감목관 9명, 첨사 76명, 만호 80명, 별장 29명, 권관 33명, 영장 12명이니, 모두 621명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중국 인물을 총망라해 천거하려면, 중국 역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학자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



《낙포도정》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인물평가 기준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다. 특히 중국의 역대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낙포도정》의 한 부분.

이다.

우리 국토를 중국 인물들에게 맡겼으니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탄식할 만도 하지만, 우리 국토를 세계의 중심에 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중국 인물들이 중국을 맡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대 중국 인물들을 총동원해 우리 국토를 지키고 다스리게 해본 것도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책의 작가는 천여명 중국 인물들을 조선 곳곳의 관청과 요새에 배치하면서, 마치 임금이라도 된 것처럼 행복했을 것이다. 어쩌면 친구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몇몇 벼슬의 적임자를 바꾸기도 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인물평가 기준을 더듬어보는 것도 재미있다.●